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하 유 미¹⁾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박 성 연²⁾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고, 어떠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735명이며, 어머니 자기보고용 질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론모형에 대한 구조방정식모형분석 결과, 이론모형의 적합도 및 구조적 관계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어머니의 회피애착 성향은 불안애착 성향과 달리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서로 다른 경로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는 한편,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이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양육행동에서 애착의 중요성과 함께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

주요어 : 성인애착, 우울, 분노, 정서조절양식, 양육행동

* 본 논문은 2012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1) (재)한국건강가정진흥원, 팀장

2) 교신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학과, 교수 (E-mail : psy@ewha.ac.kr)

I. 서 론

인간은 생애 초기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정서적 유대 관계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인지, 타인이 반응적이고 접근 가능한 존재인지에 대한 신념과 기대,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한 표상을 포함하는 내적 작동모델을 형성한다(Bowlby, 1988). 이 내적 작동모델은 이후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에 대한 원형으로 작용하게 되어 아동기와 청년기를 거치면서 애착 대상이 어머니 이외의 친구나 연인으로 변화되고 확대되며, 성인초기에 이르러서는 연인관계를 포함한 모든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주어 성인애착으로 발전되는 지속적인 특성이 있다(이시은, 이재창, 2005; 장휘숙, 1997; Hazan & Shaver, 1987; Mallinckrodt, 2000; Sroufe, Egeland, Carlson, & Collins, 2005).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 유대인 애착관계가 정서적으로 매우 친밀한 성인들 사이에서도 나타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시작되었다. 그 결과, 안정애착의 성인들은 불안-양가적 성인들이나 회피적 성인들에 비해 타인을 선의적으로 생각하고(Hazan & Shaver, 1987),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친밀감과 자율성 간의 균형을 원하는(Collins & Read, 1990) 등 애착의 특성에 따라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어릴 적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한 내적 작동모델이 성인이 된 지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하여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성인애착관련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인애착 특성이 자신의 성향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타인 중에서도 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면서 어머니가 타인과 쉽게 가까워지고 타인과의 관계를 편안히 느끼는 안정적인 성인애착을 가질수록 애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영, 민하영, 2010). 그에 반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성향이 높은 애착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에게 언어적 통제와 심리적 통제를 많이 하며 공격적인 행동도 많이 보이고, 회피성향이 높은 애착을 가진 어머니도 자녀에게 높은 무관심과 함께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다(안명희, 2010a, 2010b; Shaver, Segev, & Mikulincer, 2011). 또한 무시형 애착을 형성한 어머니는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소원한 행동을 하는 한편, 집착형 어머니는 혼란스럽고 비일관적인 태도를 보이거나(Crowell & Feldman, 1988), 화를 많이 내면서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Adam, Gunnar, & Tanaka, 2004). 따라서 어머니 자신이 안정애착을 형성했을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며, 반대로 불안정애착을 형성했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애착은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나 그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수의 연구들에서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에

비해 무시형, 집착형, 두려움형과 같은 불안정 애착의 성인들이 긍정적인 정서수준이 현저하게 낮고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가 높게 나타난다(곽소현, 김순옥, 2007; 정연옥, 이민규, 2005; Adam, et al., 2004). 또한 불안과 회피 성향이 높은 성인애착을 가진 성인 모두 부정 정서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영주, 2005; 안명희, 2010a).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은 분노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정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은 분노를 경험하거나 표현하는 정도가 적은 반면 불안정애착 유형의 성인은 분노를 더 많이 경험하거나 강도도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해진, 신현균, 홍창희, 2008; 박나이, 2005; Adam, et al., 2004; Mikulincer, 1998).

그러나 김정란과 이은희(2007)의 연구에서 회피애착 성향이 우울증 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불안애착 성향만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핵심 요소로 나타났고, 박영주와 이영호(2010)의 연구에서는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에 따라 우울의 양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등의 결과들을 볼 때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 유형이 부정 정서에 이르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성인애착은 부정 정서를 줄일 때 사용하는 정서조절양식과도 관련성이 있어 안정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회피애착 성향의 사람들은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obak & Sceery, 1988). Kobak 등(Kobak, Cole, Ferenz-

Gillies, & Fleming, 1987; Kobak & Sceery, 1988)에 의하면, 자신이 가진 내적 작동모델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어 어떤 내적 작동모델을 가졌는지에 따라 근접성을 추구하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고, 관계에서 발생된 부정적인 정서를 최소화하려는 과소활성화(deactivating) 전략이나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과장된 정서를 표출하는 과잉활성화(hyperactivating)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보통 회피성향이 높은 성인들이 과소활성화 전략을, 불안애착 성향의 성인들이 과잉활성화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Mikulincer, Shaver, & Perge, 2003).

한편,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와 부정적인 양육행동과의 관련은 기존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대표적인 부정 정서로 잘 알려진 우울이나 불안은 이미 많은 선행 연구들(백종화, 2009; 이정운, 장미경, 2009; 정윤주, 2008; Leung & Slep, 2006; Sneddon, Iwaniec, & Stewart, 2009; Takei, Yamashita, & Yoshida, 2006)에서 일관되게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분노 정서 관련 연구에서도 분노를 자주 표현하는 어머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양육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체벌적 훈육방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lko, 1996). 이와 유사하게 김유미(2008)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분노 각성 수준이 높고 분노를 밖으로 표현할수록 아동을 학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되어 어머니의 부정적인 정서 상태가 긍정적인 양육행동의 걸림돌이 됨을 시사하고 있다.

부정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 또한 양육행동

과 관련이 깊다. Gross(2002)는 개인이 특정 정서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서가 야기되는 상황에 대한 양상들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정서조절에 개인차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즉, 어머니가 주로 지각하는 정서의 종류가 무엇인지, 특히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 얼마나 자주 습관적으로 경험하는지, 그 정서를 지각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정서를 조절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정서조절양식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서로 정서를 제대로 지각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정서를 잘 관리하고 긍정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는 어머니는 자녀에게도 애정적이고 합리적으로 대하는 반면, 충동적이고 정서를 억압하는 성향을 가진 어머니는 자녀를 과보호하거나 거부/적대적으로 대한다는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 준다(임희수, 2001; Rebecca, 2002). 그러므로 어머니가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절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양육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울이 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추구하는 지지추구적인 방식이나 문제해결, 인지적 재구성과 같은 능동적인 조절방식은 적게 사용하는 반면, 회피나 반추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조절방식을 주로 사용한다(Martin & Dahlen, 2005; Silk, Steinberg, & Morris, 2003). 또한,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과 장승민(2000)에 의하면 부정 정서의 종류에 따라서도 정서조절양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임민주(2009)의 연구에서 부정 정서가 높은 사람이라도 긍정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심리적 안녕감을 경험하게 되고 타인에게까지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결과들을 통해 추론해볼 때, 어머니의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간의 관계는 어머니에 따라 또는 부정 정서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어떤 정서조절양식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자녀양육행동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가 현재 갖고 있는 정서 상태와 주로 사용하는 정서조절양식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부정적 정서로 인한 정서조절양식의 중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한편, 최근의 성인애착 관련 연구들에서는 애착의 질을 하나의 유형으로 정확하게 구분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보아 불안과 회피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그 정도에 따라 정서 또는 정서조절방식의 차이를 밝히는 연구들이 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불안과 회피 두 개 차원의 특성에 따른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어머니의 부정 정서나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비 일관적이다.

즉, 불안 성향이 높은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의 성향이 높은 회피애착 성향이 모두 부정 정서나 부정적인 정서조절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류수정, 2010; 안명희 2010a, 2010b; Mikulincer, et al., 2003)가 있는가 하면, 회피애착 성향은 우울과 상관이 없고 불안애착 성향만이 우울과 관련이 있다거나(김정란, 이은희, 2007), 불안애착 성향이 회피애착 성향보다 정서조절을 더 잘 예측한다(Hwang,

2006)는 보고도 있어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어머니가 지각하는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면 자녀에게 행하는 양육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변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각각에 대한 부분적인 관계만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며, 성인애착이나 정서조절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련 연구는 거의 드문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와 더불어 부정 정서나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부정 정서가 정서조절양식을 거쳐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어머니의 불안과 회피 애착 성향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 경로와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한 간접경로를 설정하여 직접 경로와 간접 경로가 포함된 부분매개모형을 이론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의 매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를 제외하고 성인애착이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을 거쳐 양육행동에 이르는 완전매개모형을 대안모형으로 설정하여 이론모형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가장 타당한 모형을 밝혀내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6개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만 3~5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총 7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습지 관련 사설교육기관 등을 통해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총 1,400부의 설문지를 어머니들에게 배부한 후 교사를 통해 회수하였다(회수율 74.3%). 한편, 회수된 질문지중 어머니의 부정 정서에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 최근 1~2개월 이내에 급격한 변화나 사건이 있어 심각한 스트레스 정도를 경험한 적이 있었던 어머니들의 자료(13.1%)를 먼저 제외한 후 다시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 및 이상치(outlier)가 있는 자료를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735부를 연구문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9($SD=3.4$)세이고, 대학교 졸업 학력이 48.2%로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소득은 월 300~500만원이 53.2%였으며, 어머니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수준은 대부분(94.7%) '중'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은 교육수준 및 직업유형, 월소득(통계청, 2010) 등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중산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측정도구

성인애착 척도

어머니의 성인애착 측정은 김성현(2004)의 친밀관계 경험척도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Scale-R: ECR-R)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Brennan, Clark와 Shaver(1998)가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의 상대적이고 독립적인 두 개의 축으로 보아 불안차원과 회피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성인애착유형을 연속적인 차원에서 개념화한 것으로 국내의 김성현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 정도(각 18문항씩)를 측정하는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7점)’의 7점 Likert식 척도이다.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의 요인추출과 Oblimin 방식의 회전 방법을 사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에서 제시한 2개의 요인수와 동일하게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그 개별 문항 또한 대부분 일치하였다. 그러나 문항 중 서로 다른 요인에 중복 부하되어 있는 2문항이 발견되어 이를 제외한 후 첫 번째 요인 18문항을 불안애착 성향으로 명명하였고, 두 번째 요인 16문항을 회피애착 성향으로 명명하였다. 각 요인별 신뢰도 Cronbach's α 는 불안애착 성향이 .92, 회피애착 성향이 .88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을 잠재변인으로 사용하기 위해 Russell, Kahn, Spoth와 Altmaier(1998)의 방법을 사용하여,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의 각 요인부하량의 평균이 유사하도록 3개의 부분(parcel)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불안애착 성향1, 2, 3은 각각 6개 문항이 포함되어 평균요인부하량 .607, .655, .695로 나타났으며, 회피애착 성향1과 2는 각각 5개 문항이 포함되어 평균요인 부하량은 .646, .584으로 나타났으며,

회피애착 성향3은 6개 문항이 포함되어 평균요인부하량은 .549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 척도

어머니의 우울 측정은 Radloff(1977)의 CES-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우울을 경험한 빈도를 기록하는 것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없었다(1점)’에서 ‘매일 있었다(4점)’의 4점 Likert식으로 20문항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현재 우울성향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대상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분노 척도

어머니의 분노 측정은 Spielberger, Krasner와 Solomon(1988)이 개발한 상태-특성 분노 표현 검사(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 검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한국판으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STAXI-K는 특정 사건에 대한 일시적 반응으로 나타나는 ‘상태 분노’ 10문항과 비교적 안정된 분노 경향의 개인차를 측정하는 ‘특성 분노’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성격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측면인 ‘특성 분노’만을 측정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식으로 응답하게 되며, 특성 분노 10문항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특성 분노의

Cronbach's α 는 .85이었다.

어머니의 정서조절양식 척도

어머니의 정서조절양식을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윤석빈(1999)이 개발하고 임전옥(2003)이 수정한 정서조절양식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능동적 정서조절양식,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3개 하위 요인의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1)'에서 '자주 사용한다(5)'의 5점 Likert식으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본 연구 자료에 적합한 요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 Varimax 방식의 직교회전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 척도와 동일하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능동적 정서조절양식 8문항,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 8문항,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8문항이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각 조절양식의 Cronbach's α 는 .85, .91, .8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은 박성연, 이숙(1990)의 양육행동척도와 Block, Block과 Roverts(1984)의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을 참고로 하여 유우영(1998)이 제작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 거부/통제, 과보호, 일관성, 독립성 지향의 5개 하위요인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자료에 대해 Oblimin 방식의 직교회전 방식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 요인의 총 25문항이 추출되었다. 요인1

은 자녀에 대한 존중, 수용, 애정표현 등을 나타내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애정'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2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불만이나 비난,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행동에 관한 6문항으로 구성되어 '거부/통제'로 명명하였다. 요인 3은 자녀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내용과 관련된 4문항이 포함되어 '독립성 지향'으로 명명하였고, 요인 4는 자녀의 독립적인 행동을 막으면서 지나치게 관심을 주거나 뒷바라지하는 행동의 5문항을 포함하여 '과보호'라 명명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에 대한 Cronbach's α 는 애정이 .91, 거부/통제가 .81, 독립성 지향이 .74, 과보호가 .60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정서조절양식 및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주축분해 방법과 주성분분석 방법, Varimax 방식과 Oblimin 방식의 직교회전 방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정서조절양식,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AMOS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에서 제시한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과 경로를 검증하기 위해 Anderson과 Gerbing(1988)의 이론적 근거에 따라 측정모형

의 타당성을 검증한 후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하는 2단계 접근(two-step approach)방법을 사용하여, 1단계에서는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2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이 포함된 인과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1, 2단계 모두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추정을 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χ^2 값과 RMSEA, NFI, TLI, CFI 등을 사용하였고, 간명적합지수인 AIC를 이용하였다. 또한, 경로의 효과성을 분해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활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측정모형 분석

어머니의 성인애착, 부정 정서, 정서조절양식 및 양육행동의 각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나타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보듯이 모형의 적합도 지수인 NFI, IFI, TLI, 그리고 CFI 모두 기준치인 .9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RMSEA 값도 .10을 넘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좋지 않은 편이었다. 이에 모형

의 추정치(Estimates)를 살펴본 결과, 정서조절양식의 측정변인 중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과 양육행동의 측정변인 중 거부통제와 과보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각각 .130, -.364, .023으로 나타나 각각의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측정모형에서 이들을 제거한 후 모형을 수정(수정모형 A)하여 재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모형 A는 적합도 지수인 NFI, IFI와 CFI가 기준치인 .90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TLI가 기준치 .90보다 낮고 여전히 RMSEA 값도 높아 모형의 적합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니었기에 좀 더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고려하여 모형을 수정하였다. 본 분석 결과에서 수정지수가 10을 초과하여 높게 나타난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3과 부정 정서 중 '분노', 그리고 어머니의 회피애착 성향1과 '지지추구적 정서조절양식'의 각 오차변량 간에는 이론에 근거하여 충분히 공분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오차항에 공분산 경로를 연결하여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수정모형 B). 수정모형 B를 분석한 결과, 적합도 지수인 NFI, IFI, TLI, 그리고 CFI 모두 기준치인 .9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RMSEA 값도 .088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수정모형 B가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정모형 A와 수정

표 1. 측정모형과 수정모형의 적합도 비교

(N=735)

모형	χ^2	df	NFI	IFI	TLI	CFI	RMSEA
측정모형	730.558	80	.848	.862	.818	.861	.105
수정모형 A	332.024	44	.923	.932	.898	.932	.094
수정모형 B	283.452	42	.934	.943	.910	.943	.088
A:B	$\chi^2_B - \chi^2_A = 48.572$	$df_B - df_A = 2$	$p = .000 < p = .01$				

표 2. 측정모형의 모수추정치

(N=735)

잠재변인	측정변인	B	β	S.E.	C.R.
불안애착 성향	불안애착 성향1	1.000	.888		
	불안애착 성향2	1.094	.915	.031	35.819***
	불안애착 성향3	1.089	.888	.032	34.118***
회피애착 성향	회피애착 성향1	1.000	.732		
	회피애착 성향2	1.106	.894	.050	22.241***
	회피애착 성향3	1.329	.845	.061	21.804***
부정 정서	우울	1.000	.811		
	분노	.284	.401	.040	7.091***
정서조절 양식	능동적	1.000	.682		
	지지추구적	1.326	.719	.115	11.490***
양육행동	애정	1.000	.968		
	독립성지향	.209	.533	.023	9.173***

*** $p < .001$, S.E.(Standardized Error), C.R.(Critical Ratio)

모형 B 간 χ^2 수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Delta\chi^2 = 48.572$, $\Delta df = 2$ 로 df 가 2만큼 감소하였으나 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χ^2 를 48.572 만큼 얻게 되어 수정모형 A와 B 사이에 χ^2 값의 차이가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므로 수정모형 B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최종 수정된 측정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측정모형에서 사용된 모든 변인의 표준화된 회귀계수가 .401~.968로 나타나 그 값이 유의미하였으며¹⁾, 측정변수들의 C.R.(critical ratio)값이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모든 측정변인이 잠재변인의 개념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표준화된 회귀계수(β)가 .40 이상일 때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한다(송지준, 2009).

한편,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의 상관이 유의미하여($r = .219$, $p = .000$)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피애착 성향을 통제한 후 불안애착 성향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고, 마찬가지로 불안애착 성향을 통제한 후 회피애착 성향과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편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회피애착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불안애착 성향은 부정정서($r = .383$, $p < .001$)와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양식($r = -.071$, $p = .053$)과 양육행동($r = -.297$, $p < .001$)과는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 불안애착 성향 성향이 강할수록 부정 정서가 많은 반면, 긍정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불안

애착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회피애착 성향 또한 부정정서($r=.142, p<.001$)와 정적인 상관 이 나타났으며, 정서조절양식($r=-.389, p<.001$) 과 양육행동($r=-.160, p<.001$)과는 부적인 상관 이 나타났다. 즉, 각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매개조 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변인들 간의 방향성이 예측된 방향으로 나옴에 따라 연구모형 분석 이 가능하였으므로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변인 들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 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2. 구조모형 검증

이론 모형과 대안모형의 비교

모형을 검증하는데 있어 이론적 배경을 근 거로 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을 설정한 후 모 형 간 비교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한 모 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이론 모형으 로는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

향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 편, 어머니의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가정하는 부분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에 비해 대안모형은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점으로 살펴보기 위해 이 두 변인에 초점을 두어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부정 정서 및 정서조 절양식을 각각 거쳐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완전매개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이론 모형과 대안 모형의 비교를 위해 각 모형 간의 χ^2 값의 차이를 비교하고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한 결과, 표 3에서와 같이 이론 모형과 대안모형의 NFI, TLI, CFI 지수와 RMSEA 값에 있어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으나 모형을 평가하는 적합도 지수 중 간명적 합도지수인 AIC는 이론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낮은 AIC 지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이론모형과 대안모형의 χ^2 값의 차이 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3.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N=735$)

모수	B	β	S.E.	C.R.
불안애착 성향(ζ_1) → 부정 정서(η_1)	.689	.488	.065	10.655***
회피애착 성향(ζ_2) → 부정 정서(η_1)	.406	.207	.091	4.485***
불안애착 성향(ζ_1) → 정서조절양식(η_2)	-.026	-.033	.046	-.575
회피애착 성향(ζ_2) → 정서조절양식(η_2)	-.508	-.462	.061	-8.279***
불안애착 성향(ζ_1) → 양육행동(η_3)	-.173	-.131	.070	-2.472*
회피애착 성향(ζ_2) → 양육행동(η_3)	.114	.062	.089	1.277
부정 정서(η_1) → 정서조절양식(η_2)	-.094	-.168	.041	-2.291*
부정 정서(η_1) → 양육행동(η_3)	-.302	-.324	.075	-4.039***
정서조절양식(η_2) → 양육행동(η_3)	.599	.360	.097	6.174***

* $p<.05$, *** $p<.001$, S.E.(Standardized Error), C.R.(Critical Ratio)

나타나($A:B \rightarrow \Delta\chi^2=6.342$, $\Delta df=2$, $p<.05$)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고 AIC 지수도 고려한 결과 이론모형이 대안모형보다 더 적합한 모형임을 확인하였다.

연구모형에 대한 경로 분석

연구모형에서 이론 변인들 간의 경로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은 각 변인에 서로 다른 경로로 영향을 미쳤다. 표 4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안애착 성향(ζ_1)의 경로를 살펴보면, 불안애착 성향(ζ_1)에서

부정 정서(η_1)에 이르는 표준화 추정치는 .488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행동(η_3)에 이르는 추정치 -.131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서조절양식(η_2)에 이르는 추정치 -.033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피애착 성향(ζ_2)의 경로를 살펴보면, 회피애착 성향(ζ_2)에서 부정 정서(η_1)에 이르는 표준화 추정치는 .207로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서조절양식(η_2)에 이르는 경로 추정치 -.462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양육행동(η_3)에 이르는 경로 추정치 .062는 유의하지 않

표 4. 이론 모형과 대안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N=735)

모형	χ^2	df	NFI	TLI	CFI	RMSEA	AIC
A	283.452	42	.934	.910	.943	.088	379.452
B	289.794	44	.933	.913	.942	.087	381.794
A:B	$\chi^2_B - \chi^2_A = 6.342$		$df_B - df_A = 2$		$p < .05$		

주) A: 이론모형(부분매개모형)

B: 대안모형(완전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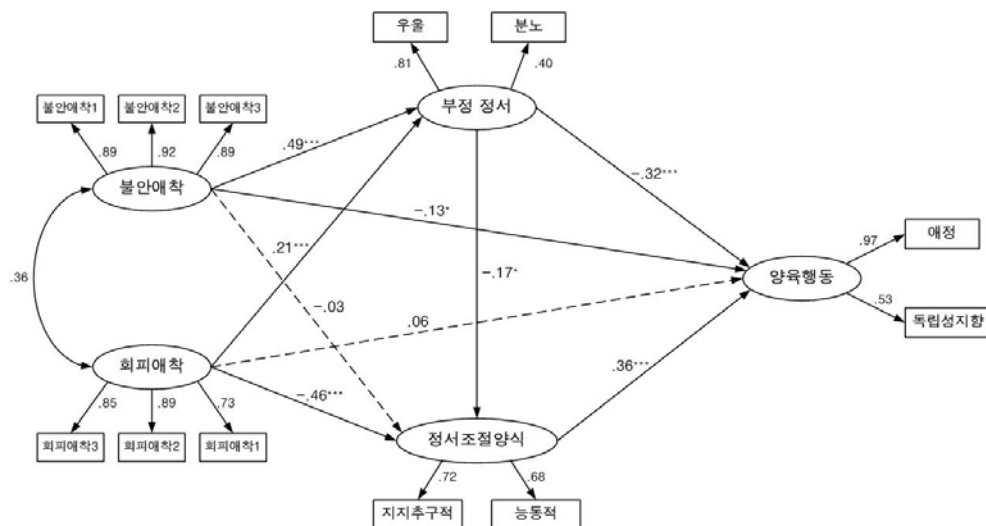


그림 1.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양육행동에 이르는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결과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외생변수인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내생변수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내생변수들 간의 추정치를 살펴보면, 부정 정서(η_1)에서 정서조절양식(η_2)에 이르는 추정치 -.168과 부정 정서(η_1)에서 양육행동(η_3)에 이르는 추정치 -.324, 정서조절양식(η_2)에서 양육행동(η_3)에 이르는 추정치 .360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론 변수간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와 구조적 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효과성을 분해한 결과, 표 5와 같이 불안애착 성향은 양육행동에 경계선 수준의 직접적인 영향($\beta = -.131, p = .061$)을 미침과 동시에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을 거쳐 양육행동에 유의미하게 간접적인 영향($\beta = -.200, p < .01$)을 미쳤다.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불안애착 성향은 부정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beta = .488, p < .01$)이 유의하지만 정서조절양식에는

직접적인 영향($\beta = -.033, p = .625$)이 유의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애착 성향은 우울과 분노의 부정 정서를 거쳐 양육행동을 영향을 미치거나 부정 정서와 능동적,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친 후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피애착 성향의 경우에는 양육행동에 이르는 직접적인 영향($\beta = .062, p = .295$)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정 정서나 정서조절양식을 거쳐 양육행동에 간접적인 영향($\beta = -.246, p < .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애착 성향의 경우 우울과 분노의 부정 정서와 능동적,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양식을 거친 후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애착이 정서조절양식에 이르는 경로에 있어 불안애착 성향은 부정 정서를 거쳐 정서조절양식에 이르는 간접효과($\beta = -.082, p < .10$)만이 유의하여 완전매개를 보이는 반면, 회피애착 성향은 정서조절양식에 이르는 직접적인

표 5. 연구모형의 인과적 효과 분해

(N=735)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SMC
불안애착 성향(ζ_1) → 부정 정서(η_1)	.488**	-	.488**	.353
회피애착 성향(ζ_2) → 부정 정서(η_1)	.207**	-	.207**	
불안애착 성향(ζ_1) → 정서조절양식(η_2)	-.033	-.082†	-.115*	.320
회피애착 성향(ζ_2) → 정서조절양식(η_2)	-.462**	-.035†	-.497**	
부정 정서(η_1) → 정서조절양식(η_2)	-.168†	-	-.168†	
불안애착 성향(ζ_1) → 양육행동(η_3)	-.131†	-.200**	-.331**	.370
회피애착 성향(ζ_2) → 양육행동(η_3)	.062	-.246**	-.184**	
부정 정서(η_1) → 양육행동(η_3)	-.324**	-.060†	-.385**	
정서조절양식(η_2) → 양육행동 (η_3)	.360**	-	.360**	

† $p < .10$, * $p < .05$, ** $p < .01$, 모든 수치는 표준화된 계수임.

효과($\beta=-.462, p<.01$)와 더불어 부정 정서를 거쳐 정서조절양식에 이르는 간접 효과($\beta=-.035, p=.061$)가 함께 나타나 부분매개의 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부정 정서가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도 부정 정서의 직접적인 영향($\beta=-.324, p<.01$)과 동시에 정서조절양식을 거쳐 양육행동에 이르는 간접적인 영향 ($\beta=-.060, p=.062$) 또한 경계선 수준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부정 정서를 설명하는 다중상관치는 .353, 애착과 부정 정서가 정서조절양식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는 .320, 애착,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이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다중상관치는 .370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인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 부정 정서, 정서조절양식 및 양육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한편,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 중 우울,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와 그 부정 정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인 정서조절양식이 성인애착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의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그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잠재변수들 간의 경로와 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를 전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성인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에 있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즉, 불안애착 성향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회피애착 성향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개별적이고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한 Brennan 등(1998)이나 국내외의 연구들(안명희, 2010a; 이정희, 심혜숙, 2007; Hwang, 2006)의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또한 불안애착이 부정적인 양육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전효정, 2003; 최옥자, 2006; Adam, et al., 2004; Crowell & Feldman, 1988)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성인애착을 불안과 회피차원으로 구분하여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양육행동에 이르는 직접 또는 간접경로를 규명한 선행 연구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은 할 수 없으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의 양육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경로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과는 그 경로에 있어 매개하는 변인에 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부정 정서를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 애착차원 모두 부정 정서를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안정한 성인애착이 부정 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 연구들(곽소현, 김순옥, 2007; 안명희, 2010a, 2010b; 정윤주, 2008; Adam, et al., 2004)과 일치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애착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가 부정 정서를 인식하고 있는 것에 따라

양육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이나 회피애착 성향은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 정서를 일으키게 되고 이러한 부정 정서로 인해 결과적으로 애정적이거나 독립지향적인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이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회피애착 성향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애착 성향은 정서조절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 경로에 있어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에 따라 정서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과정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선행 연구들(류수정, 2010; 신지옥, 2006; Mikulincer, et al., 2003; Hwang, 200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불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를 완화시키기 위한 인지적 능력이 취약하여 적응적이지 못한 전략들에 의존한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들(신노라, 안창일, 2004; 이귀선, 정남운, 2003; 이시은, 2009; Kobak & Sceery, 1988)이나 어머니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정서조절을 하는 경우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한다는 임희수(2001)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피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정서를 숨기며, 긍정적인 정서조절의 방식을 사용하기보다는 정서를 억제하는 부적응적인 정서조절방식을 사용하는 경향이

많다(류수정, 2010; 신지옥, 2006; Mikulincer, et al., 2003; Hwang, 2006). 따라서 어머니의 회피애착 성향이 정서조절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회피애착 성향이 부적응적인 정서조절을 이끌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본 연구모형에서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다라도 어머니의 회피애착 성향이 부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보다 정서조절양식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회피애착 성향은 부정 정서를 인식하는 것보다 정서조절방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이 정서조절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불안애착 성향을 가진 성인이 회피애착 성향 성인에 비해 자신에게 일어나는 강렬한 정서를 더욱 민감하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의식적으로 정서를 조절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부정 정서에 압도되어 그 정서가 이끄는 대로 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류수정, 2010). 다시 말하면, 불안애착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부정 정서가 발생되었을 때 회피애착 성향의 어머니보다 더욱 부정 정서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에서 검증된 연구모형에서 불안애착 성향이 부정 정서로 가는 경로계수가 회피애착 성향이 부정 정서로 가는 경로계수보다 더 높아 불안애착 성향이 부정 정서에 이르는 그 영향력이 더 강하다는 것으로도 뒷받침된다.

넷째,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은 모두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부정 정서에 지나치게 주의 기울일 뿐 아니라 부정 정서로 인해 정서조절양식 역시 영향을 받아 자녀를 대하는 양육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부정 정서 또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많은 선행연구결과들(김유미, 2008; 백종화, 2009; 윤혜미, 최문정, 2006; 이정윤, 장미경, 2009; Chi & Hinshaw, 2002; Dix & Meunier, 2009)과 일치하였다. 즉, 어머니들이 우울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가질수록 그 정서로 인해 긍정적이지 못한 양육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여섯째, 어머니의 정서조절양식 역시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임희수, 2001; Rebecca, 2002)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긍정적인 정서조절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적게 한다고 볼 수 있다.

일곱째, 어머니의 부정 정서는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정 정서를 많이 가진 어머니일수록 능동적이거나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양식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유발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부정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능동적이거나 지지추구적인 정서조절양식을 덜 사용한다는 연구(임민주, 2009; Martin & Dahlen, 2005)와 어머니가 스스로 부정적인 정

서를 인식하여 긍정적인 대처행동을 하였을 때 양육행동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연구결과(정순중, 2005)와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요약해 보면,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은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부정 정서 및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쳤다. 반면 어머니의 회피애착 성향은 불안애착 성향과 달리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을 매개로 양육행동에 미치는 동시에 정서조절양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어머니의 성인애착은 불안과 회피애착 성향 정도에 따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고, 이때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이 매개하여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또한 차이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불안애착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자신의 부정 정서를 본래보다 극대화하여 지각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반면, 회피애착 성향이 높은 어머니는 양육행동에 있어 정서조절양식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자신의 정서를 무의식적으로 부정해 버리거나 억제하는 등의 부적응적인 조절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전 생애를 통해 지속되는 내적 작동모델의 형성이 생애 초기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에서 비롯된다는 애착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장기 종단연구가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횡단적 자료에 근거한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결과에 대해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제

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연구방법과 중단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경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인애착을 유형으로 나누는 대신, 최근 연구경향에 따라 불안과 회피 차원으로 애착을 구분하여 불안이나 회피애착 성향에 따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위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어머니의 불안애착 성향과 회피애착 성향에 따라 부정 정서와 정서조절양식 및 양육행동에 미치는 경로에 차이가 있음을 밝힘으로써 부모상담이나 부모교육 시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실용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곽소현, 김순옥 (2007). 기혼여성의 애착 안정성과 자아존중감에 따른 우울, 불안: 초등학교 어머니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5(7), 35-48.
- 김성현 (2004). 친밀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유미 (2008). 어머니의 분노경향성과 아동학대 유발 가능성.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란, 이은희 (2007). 중년 여성의 불안정 애착이 본인의 우울수준 및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태도와 부부 갈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 치료*, 19(2), 297-319.
- 김지영, 민하영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삶의 만족도가 애정-거부 적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6(1), 137-155.
- 김해진, 신현균, 홍창희 (2008). 성인애착 유형, 특성분노 및 음주문제의 관계: 분노 표현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7(3), 729-748.
- 류수정 (2010). 애착에 따른 정서경험, 정서표현, 정서조절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민경환, 김지현, 윤석빈, 장승민 (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2), 1-16.
- 박나이 (2005). 애착유형에 따른 역기능적 태도 및 분노표출 양상의 차이.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 이 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척도표 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박영주 (2005). 애착의 회피-불안 차원에 따른 우울양식과 대인관계 문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영주, 이영호 (2010).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우울 경험양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9(2), 441-452.
- 백종화 (2009). 우울 및 비우울 어머니의 양육

- 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노라, 안창일 (2004). 성인 애착 유형과 자기 개념, 효능감, 대처 양식, 사회적 지지 수준과 대인불안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4), 949-968.
- 신지옥 (2006). 애착, 정서, 그리고 대인관계 유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경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명희 (2010a).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안명희 (2010b). 어머니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정서와 심리적 통제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867-885.
- 유우영 (1998). 유아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양육관련 변인의 인과 관계.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석빈 (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윤희미, 최문정 (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방임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47, 21-44.
-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15(4), 779-793.
- 이시은 (2009). 성인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897-914.
- 이시은, 이재창 (2005). 대학생의 애착유형, 부모 또래 애착 그리고 정서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947-963.
- 이정윤, 장미경 (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이정희, 심혜숙 (2007). 성인애착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공변량구조분석. 상담 학 연구, 8(3), 899-915.
- 임민주 (2009). 정서표현의 양가성과 정서조절양식이 삶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전옥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수 (2001).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1997). 청소년기의 애착과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4(1), 88-106.
-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 Spielberger (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60-78.
- 전효정 (2003). 어머니-유아 애착의 세대 간 전이의 매커니즘: 어머니의 내적실행모델과 자녀 양육행동이 유아의 애착유형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8(3), 159-174.

- 정순중 (2005). 학부모 정서관리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청구논문.
- 정연옥, 이민규 (2005). 성인기 애착유형, 부정적 인지 왜곡 및 우울수준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1), 167-184.
- 정윤주 (200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애착경험, 성격특성,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46(3), 73-85.
- 최옥자 (2006). 어머니의 아동기 부모 애착이 자녀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dam, E. K., Gunnar, M. R., & Tanaka, A. (2004). Adult attachment, parent emotion, and observed parenting behavior: mediator and moderator models. *Child Development*, 75, 110-122.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Block, J. H., Block, J., & Roverts, G. C. (1984). Continuity and change in parent' child-rearing practices. *Child Development*, 55, 586-597.
- Bowlby(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ew York: Basic Books.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 New York: Guilford.
- Chi, T. C., & Hinshaw, S. P. (2002). Mother-child relationships of children with ADHD: the role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depression-related distor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4), 387-400.
- Collins, N.,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rowell, J. A., & Feldman, S. S. (1988). Mother's internal models of relationships and children'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A study of mother-child interaction. *Child Development*, 59, 1273-1285.
- Dix, T., & Meunier, L. N. (2009). Depressive symptoms and parenting competence: An analysis of 13 regulatory process. *Developmental Review*, 29, 45-68.
- Gross, J. J. (2002). Emotion regulation: Affective, cognitive, and social consequences. *Psychophysiology*, 39, 281-291.
- Hazan, C., & Shaver, P. R.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wang, J. E (2006). *A processing model of emotion regulation: Insights from the attachment system*. Unpublished doctoral thesis, Georgia Atlanta: Georgia State University.
- Kobak, R. R., Cole, H. E., Ferenz-Gillies, R., & Fleming, W. S. (1987). Attachment in the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 regulation, and presentation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Kolko, D. J. (1996). Child physical abuse. In J. Briere., L. Berliner., J. Bulkley., C. Jenny, & T. Reid(Eds). *The APSAC handbook on child maltreatment*, 21-55. Sabe Publication.
- Leung, D. W., & Slep, A. M. S. (2006). Predicting inept discipline: The role of parental depressive symptoms, anger, and attribu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 524-534.
- Mallinckrodt, B. (2000). Attachment, social competencies, social support and interpersonal process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Research*, 10, 239-266.
- Martin, R. C., & Dahlen, E. R. (2005). Cognitive emotion regulation in the prediction of depression, anxiety, stress, and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9(7), 1249-1260.
- Mikulincer, M. (1998). Adult attachment styl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functional versus dysfunctional experiences of ang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513-524.
- Mikulincer, M., Shaver, P. R., & Perge, D. (2003). Attachment theory and affect regulation: The dynamics, development, and cognitive consequences of attachment - related strategies. *Motivation and Emotion*, 27, 77-10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becca, C. C. (2002). *Parents' awareness and management of emotion: Implications for parenting practices and child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thesi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Russell, D. W., Kahn, J. H., Spoth, R., & Altmaier, E. M. (1998). Analyzing data from experimental studies: A latent variab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18-29.
- Shaver, P. R., Segev, M., & Mikulincer, M. (2011). A behavioral systems perspective on power and aggression. In P. R. Shaver & M. Mikulincer(Eds.), *Human aggression and violence*. (pp.71-88). Washington D. 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ilk, J. S., Steinberg, L., & Morris, A. S. (2003). Adolescent's emotion regulation in daily life: Link to depressive symptoms and problem behavior. *Child Development*, 74(6), 1869-1880.
- Sneddon, H., Iwaniec, D., & Stewart, M. C. (2009). Prevalence of childhood abuse in mothers taking part in a study of parenting their own children. *Child Abuse Review*, 19, 39-55.
- Spielberger, C. D., Krasner, S. S., & Solomon, E. P. (1988).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n M. P. Janisse (Ed.), *Health psychology: Individual differences and stress*

- (pp.89-108). New York: Springer-Verlag.
- Sroufe, L. A., Egeland, B., Carlson, E., & Collins, W. A. (2005). Placing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in developmental context: The Minnesota longitudinal study. In K. E. Grossmann, K. Grossmann & E. Waters(Eds.), *Attachment from infancy to adulthood: The major longitudinal studies*. NY: Guildford Press.
- Takei, T., Yamashita, H., & Yoshida, K. (2006). The mental health of mothers of physically abused children: The relationship with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report from Japan. *Child Abuse Review*, 15, 204-218.
- 1 차원고접수 : 2012. 3. 30
수정원고접수 : 2012. 5. 10
최종게재결정 : 2012. 5. 31

The Effects of Adult Attachment, Mother's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on Parenting Behavior

Ha, Yoo Mi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Park, Seong Yeon

Dept. of Child Development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structural model for the associations between a mother's adult attachment,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and parenting behavior.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735 mothers of 3-to 5-year-old preschool children attending nursery and kindergarten or home schooling centers in Seoul and 5 metropolitan areas (M age=33.9 yrs; $SD=3.4$).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elf-reporting questionnaires for mothers and analyzed by mea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The results revealed that; 1)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had an influence upon parenting behavior via a number of different pathways. That is, anxiety attachment was observed to have both direct effect and indirect effects mediated by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upon parenting behavior. However, anxiety attachment appeared not to have a direct effect upon emotion regulation styles. 2) Avoidance attachment did not appear to have a direct effect on parenting behavior and had an indirect effect which was clearly mediated by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3) Both anxiety attachment and avoidance attachment had direct effects on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indicating that negative emotions and emotion regulation styles mediated the associations between adult attachment and parenting behavior. 4) Anxiety attachment had a greater impact on negative emotions whereas avoidance attachment had a greater impact on emotion regulation styles.

Key words : adult attachment, depression, anger, emotion regulation, parenting behavior